

예배 및 모임안내

2019-39호 2019년 09월 29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06	10. 13	10. 20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유미경 집사	김효종 집사
성 경 봉 독	박예슬 자매	유미경 집사	김효종 집사
헌 금 위 원	김효종 집사	김효종 집사	박재기 집사
안 내 위 원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스8~10장, 욥1, 사1~21장)
2.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며(감사 봉투 사용),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3. 북독 청년연합수련회 : 10월2일(수)~4일(금) 함부르크.
4. 9월 생일 - 이효실성도(7일) 김복자권사(8일) 김효종집사(11일) 김문희성도(30일)
5. 한국 방문 - 임미수 성도 가정(29일), 김영희 권사 가정(10월 4일)
6. 봉사자 기도회-매 주일 오후 12시 45분 유아실에서 모입니다.
7. 나눔의 시간 - 이상호 목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문희 성도(30일)
새 교우	박에스더 자매(피아노 전공)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새로 등록된 교우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김선탐,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20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66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536장 다같이
- 기 도 Gebet 황희순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시 125 : 1 - 5(구p899)..... 황희순 집사
(Psalm 125:1-5)
- 설 교 Predigt **여호와 경외함이 복입니다**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542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유미경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9월 생일 축하 친교실

묵상의 전통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셨고, 자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두 요소 즉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습관”이 묵상의 전통을 낳습니다.

묵상의 전통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바쁘고 걱정거리로 가득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묵상의 전통을 훈련함으로써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두고자 하는 ‘공란’을 만들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뉘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그런 노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지나치게 바쁜 일상과 책임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시간 관리라는 명목으로 자투리 시간마저 짜내려고 합니다. TV의 광고는 조금의 휴식시간마저 쇼핑과 영화와 외식으로 유혹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토크쇼, 음악, 스포츠, 뉴스 등으로 우리를 자극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환경은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죄의식을 느끼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과 문화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독과 조용한 시간, 묵상과 사색의 시간, 기도와 침묵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동정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만든 삶의 공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성 훈련을 위한 아홉 번의 만남 / James Smith & Linda Graybill

***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리와 공의를 사랑한다.**

- Demosthenes -